

알제리 산업정책 자문사업 최종보고서 발표 및 후속사업 내용 협의

-김계환 부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외

1. 출장개요

○ 참가자 (4명):

성명	소속부서	직급	출장기간	비고
김도훈	국제산업협력실	선임연구위원	4월11일-4월16일	
주동주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위원	"	
김계환	국제산업협력실	부연구위원	"	
홍진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4월12일-4월15일	

○ 출장국가: 알제리 (알제)

○ 출장기간: 2008.04.11-04.16

○ 출장목적: 알제리 산업정책 자문사업 최종보고서 발표 및 후속사업 내용 협의

2. 알제리 산업정책 자문사업 제5차 워크숍

- 2008년 4월 13일(일)- 4월 14일(월) 2일간, 알제리 산업투자부 회의실에서 양측 합동 워크숍을 개최함.

참석자

- 알제리측: 알제리 산업 및 투자부 차관과 Bukhlia Hassane 교수 등 청서 집필자들 및 각 관련자 20여명
- 한국측: 산업연구원 김도훈 박사 외 3명
KOICA 측 3명
대사관 정해웅 대사 및 대사관 요원 1인

- 한국측의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워크숍 1일차> 오전

- 4월 13일 오전 알제리 산업투자부(MIPI) 회의실에서 “아나바, 오랑 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홍진기)에 대한 한국 측 발표와 알제리측의 질의 및 토론이 있었음.

- 주요 질의 및 토론 내용

1. 아나바, 오랑을 선택한 이유와 기준은 무엇인가? 이미 2001년도 법률(국토정비 및 개발계획)에 규정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오랑, 아나바가 선택된 이유가 분명치 않음(국토환경부 대표 질의).

->알제리 국토개발 계획은 터치 하지 않을 것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성

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임. 선택된 지역은 산업개발을 위해 유리한 입지임: 항만에 가까운 곳, 인프라가 양호, 노동력에 가까운 곳임. 또한 산업클러스터 경험은 차후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임,

2. '산업단지'(industrial complex)와 ZDII(integrated industrial development zone)은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선별 기준을 도로 및 인프라 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다양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인력양성이 왜 필요하다고 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교육 인적자원부 질의)

->위 개념구분의 실질적 함의가 무엇인지 불확실함. 제안된 산업클러스터 개념은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둔 개념이며, 이러한 확장을 통해 결과적으로 integrated zone이 형성되는 것임. 비판한 대로 지역의 장단점 분석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인력은 양적으로 풍부하다 할 수 있으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은 부족하며, 따라서 인력의 질이 중요함.

3. 어떤 형태의 기업이 공단을 관리하는 가? (광업부 질의)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에서 관리하며 최근 인프라 관리에서 최근에는 지원으로 중심이 이전됨.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전국 65개 중 30여개만 관리하고 있음.

4. 토지개발은 누가 하는가? 기업선별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산업단지 프로모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토지 관리청 질의)

->토지개발 주체는 KLC(토지공사) 단지 관리는 KICOX가 맡음. 알제리에는 국가주도의 토지개발공사 제안하고자 함.

-투자자유치기준은 중앙정부가 단지개발을 허가할 때 중앙정부가 기준 선정하고 업종을 결정함.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개발과 관리를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프로모션도 개발과 관리를 통합한 통합기관에서 해야 함.

5. 기존 산업단지의 한계는 무엇인가? 산업단지 개념에서 중요한 사항은 조정(coordination)이 문제인가 아니면 특정 지역이 문제인가? 제안된 통합(integration)의 개념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동부-아나바 포함-지역 SGP 대표).

->공간이용과 통합 개념의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산업단지 조성개발이 먼저이고 이후 다른 산업단지와의 관계와 조정이 문제로 등장함.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근에는 산업단지간 조정(coordination)이 문제로 등장함, 이것은 30여년에 걸쳐 산업단지의 critical mass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임. 그러나 알제리에는 이 산업단지의 critical mass가 없음.

6. 단지의 관리에 관한 질문: 현재 도로 인프라는 누가 관리하는가? KICOX의 자금조달은? 아나바 지역 생산기지 비율은?

->초기에는 인프라 관리가 중요했지만 현재는 지원이 중요해졌으며, 인프라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음. 초기에는 분양액의 일정액을 징수했고 이렇게 조성된 적립금으로 현재 KICOX가 운영됨,

7. 이미 존재하는 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중앙지역 SGP 대표)

->기존 산업단지 재활용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새로운 산업단지에 기존 존의 기업을 이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존을 완전 재정비해야 함.

8. 알제리에 테크노파크를 개발 중이며 이와 관련된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을 필요가 있음.

9. B. Hassane 교수는 토론된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함.

-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은 산업개발 2025계획안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ZDII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연구할 필요가 있음.

-특정 지역에 집중한 접근은 특정 산업을 우대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소외 산업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네크워킹, 기존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존 산업단지를 재활성화할 것인가, 새 산업단지를 개발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임.

-산업단지의 개발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는가, 즉 거버넌스의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워크숍 1일차> 오후

● 4월 13일 오후에는 알제리 산업정책 자문사업 추진경과와(주동주),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음(김도훈).

● 알제리 측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관련부처와 관련자의 평가의견을 취합하여 빠른 시일내에 KIET에 전달하기로 함. 단 몇 가지 성과 및 앞으로의 협력사업 전망에 대한 코멘트 첨가함.

-우선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결말을 맺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 그러나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와 같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후속 사업에서는 한국기업을 끌어오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알제리 산업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 분야에서 한국측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워크숍 2일차> 오전

● 4월 14일 산업투자부 회의실에서 2차사업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한 발표(김도훈)와 알제리측의 질의 및 토론이 있었음.

● 알제리 측은 2차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함

1. 알제리 학생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의 경험을 배우게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엔지니어링, 경영학 등에서 중요함.

->그러한 사업은 코이카 사업 또는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다른 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대사관 통해 문화교육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있음(대사관측 답변).

2. 지역혁신시스템(RIS) 접근의 중요성이 제고되어야 함. 특히 FDI 유치를 위해 RIS의 구축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한국측의 자문이 필요함.

->후속사업의 개념 틀에서 국가혁신시스템(NIS)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성과를 보이게 하는 것도 후속사업의 주요 목표임. 아나바, 오랑 지역의 기술개발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연구하되, 전국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함. RIS를 후속사업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에 공감함.

-알제리 측은 RIS와 관련된 이론적 작업을 당장 시작할 것을 제안함. 이후 현장답사 등 구체화 가능할 것임. 또한 RIS개념을 ZDII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B. Hassane)

3. 2차 사업의 조직방식에 대해(BH): 1차 사업이 공무원/학자(알제리)-KIET(한국)으로 구성된 것은 1차 사업이 전반적 전략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임. 반면 2차는 보다 실천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야 하며 따라서 조직방식에 변화가 필요함. 따라서 산업부가 그룹별로, 프로젝트별로 조직되어있음을 감안 알제리 각 부문별 그룹과 한국 측 각 부문별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2차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4. 협회설립관련 경험 교환필요: 산업분야별 개발정책 지원, 산업별 산업기술센터 역할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음. 또한 기업네트워킹 구축 분야의 지원이 필요함.

5. 통계정보시스템의 필요성: 한국에서 통계청의 역할은 무엇인가? 통계정보시스템은 정부의 산업정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서 산업정책에 활용될 수 있음. 나아가 섹터별 정보를 이용해 정책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에 한국의 경험전수와 지원이 필요함.

6. 한국측은 2차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알제리 정부에 협조 요구 사항 전달

-그룹/팀이 다양한 해외 벤치마킹 지역을 방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문을 조직할 때 알제리 측이 비용 부담해야 할 것임.

-정책자문을 위해 알제리 산업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따라서 정보/통계가 한국측에 제공되어야 함.

(이에 대해 알제리 측은 통계자료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을 포함 협조를 약속)

-산투부 관장하에 있지 않은 기관에 제언이 있을 경우 기관 관련자 참여 필요

(이에 대해 알제리측도 전적으로 동의를 포함)

<워크숍 2일차> 오후 KIET-KOICA 후속사업 관련 회의

● 4월 14일 오후 주 알제 한국대사관에서 KIET(김도훈, 주동주, 김계환)-KOICA(김현근 대리, 이명훈 교수, 이충열 교수)간 알제리 산업정책 자문 후속사업에 관한 회의가 있었음. KOICA측은 후속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알제리를 방문함.

● 본 회의에서 KOICA측은 후속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범위, 기간,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예산 구성항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이에 KOICA측이 KIET에 예산계획서 요청서를 보내기로 함.

-이때 예산서는 한국측이 제공할 100만달러와 알제리측이 제공할 100만달러를 합한 200만달러에 해당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함.

● KOICA측은 행정 절차상 8월 이전에 2차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통보함.

● 주알제 한국대사관측은 알제에 KIET 연구원이 적어도 한명 상주하며 매개자역할을 하는 것이 사업의 2차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보고 일종의 Liaison Office를 설치할 것을 요구함.

-대사관측은 이에 필요한 비용 전액 알제리측 부담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힘. ☞